

In the year 1923, nine of the world's wealthiest men held a meeting in Chicago. In attendance were the presidents of the world's largest steel, gas and electricity companies, the world's greatest wheat speculator, the president of the New York Stock Exchange, a member of the cabinet of the US President, a Wall Street tycoon, the head of the world's largest monopoly, and the president of the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s. Those men knew all the secrets of generating capital and accumulating wealth. They could own anything and everything that money could buy. But there was one more thing that they had in common – and that was that within the next 10 years they all lost everything they had. One of them lived on borrowed money for the last 5 years of his life and died bankrupt. Another went insane. A third died in a foreign land, penniless and a fugitive from the law. Still another also died abroad and insolvent. The president of the New York Stock Exchange was sent to the infamous Sing Sing prison. The member of the Presidential cabinet was pardoned from prison so that he could go home to die. And the remaining 3 committed suicide. Although it is sad, and shocking, the story of these 9 men should not be surprising, for the Bible warns the rich not “to put their hope in wealth, which is so uncertain, but to put their hope in God” (1 Timothy 6:17).

1923 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부자들 9 명이 모여 시카고에서 미팅을 가졌었습니다. 거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철강, 가스, 전기 회사들의 대표들이 있었고, 세계에서 가장 세력있는 밀 흥정가, 뉴욕 증권시장의 대표, 미국 대통령의 고문단의 한명과 월 스트리트가의 거물, 세계에서 가장 큰 전매회사의 수장, 국제중앙은행 대표가 참석했었습니다. 그들은 자본을 만들고 부를 축적하는 비밀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살수 있는 모든것, 어떤 것이든 가질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또 한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모두 그후 10 년안에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중 한명은 그의 생의 마지막 5 년 동은 꾀돈으로 살다가 파산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사람은 법을 피해 도주하여 한푼없이 외국 땅에서 죽었습니다. 또 한사람도 역시 해외에서 빈털털이로 죽었습니다. 뉴욕 증권시장의 대표는 악명 높은 “싱싱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또한 그 대통령 각료중 하나는 그가 집에 가서 죽음을 맞을수 있도록 감옥에서 사면되어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사람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비록 이는 슬프고도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성경에서 부자들에게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어” (디모데전서 6:17) 라고 경고한 것을 볼때, 이 9 명의 이야기는 놀랄만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1. A Postscript for the Wealthy 부자들을 향한 추신

This word for the wealthy comes in the postscript Paul added to his first letter to Timothy. The main body of the letter ended with Paul's doxology in verse 16: “To him be honour and might forever, Amen”. But then it seems that, perhaps on rereading the letter, Paul realized that something was missing. You will remember that back in verse 9 of chapter 6 Paul had warned that “people who want to get rich” are headed for destruction. That warning was not just for the poor – it was for anyone who wanted more money. Left by itself, however, it might give the impression that it is wrong for Christians to be rich. That would be a wrong impression, for there is nothing wrong with money, in and of itself. The gospel is for everyone – for the haves as well as the have nots, rich and poor alike. We are all sinners in need of a Saviour.

부유한 자들을 위한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첫번째 서신에 추가된 추신에 나타납니다. 그 편지의 주요한 본문은 바울의 영광의 축도와 함께 16 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찌어다”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아마도 바울이 그 편지를 다시 읽었을때 뭔가가 빠졌다고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6 장 6 절에서 바울이 “부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멸망으로

(1 Timothy 6:17-21; Matthew 19: 16-30)

향하고 있다고 경고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경고는 단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 더 많은 돈을 소유하길 원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따로 떼놓고 본다면, 크리스천이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된 것 같은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돈 그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복음은 모든 이 – 가진 자건 가지지 않은 자건, 부자건 가난한 자들-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세주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Although there were many poor Christians in Ephesus (including a number of slaves), Paul also knew committed Christians there who happened to be rich. With them in mind, he wrote to Timothy, “Command those who are rich in this present world not to be arrogant nor to put their hope in wealth, which is so uncertain, but to put their hope in God, who richly provides us with everything for our enjoyment” (v.17). In the providence of God, some Christians are rich already in this life – they live in comfortable circumstances. They own their own homes, wear nice clothes and have more than enough to eat. And Christians who are blessed with such material prosperity do not need to feel guilty about it – nor do they need to give away their wealth. They are even allowed to enjoy themselves. For everything we own comes from God himself, “who richly provides us with everything for our enjoyment”. God is no miser. He provides for the rich and the poor alike, and whatever he provides is for our enjoyment.

비록 에베소에는 많은 가난한 크리스천들 (수많은 노예를 포함한)이 있었지만, 바울은 역시 어찌다 보니 부자가 된 충실한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염두에 두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세상의 부한 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것을 명하라” (17 절) 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몇몇 크리스천은 이미 이 땅에서 부유합니다 – 편안한 환경속에서 삽니다. 그들은 그들의 집을 소유하고, 멋진 옷을 입고 먹을것도 넘치도록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물질적 풍요로 축복받은 크리스천들은 그에 관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 또한 그들의 재산을 저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즐겁게 살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부터 옵니다. 그는 부자건 가난하건 비슷하게 주시고, 그가 주신 것이 무엇이건 모두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것입니다.

This doesn't mean that we should live for luxury. Paul has already warned against that kind of attitude in chapter 5 when he said that “the widow who lives for pleasure (who is self-indulgent) is dead even while she lives” (5:6). Earthly pleasures can give no lasting joy. The one real and lasting joy is God himself, but anyone who finds joy in God, the good and generous Giver, will also enjoy his gifts. Enjoyment doesn't mean self-indulgent living. The reason everything may be enjoyed lies in the recognition that everything, including our wealth, is a gift, the expression of God's gracious generosity. Surely Paul's postscript to Timothy must come as a great relief to Christians in the Western world. Compared to the rest of the world, not to mention the ancient Ephesians, we are very rich. We need not feel guilty about this, but grateful for what God has provided for our enjoyment.

이는 우리가 화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런 자세에 대해 5 절에서 “일락을 좋아하며 사는 과부는 그가 살았으나 이미 죽었느니라”(6 절) 하면서 경고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쾌락은 지속되는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참되고 지속되는 기쁨이란 하나님 그분 자체이고, 누구든 선하고 관대하게 주시는 하나님안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은 그가 주신 선물로 인해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즐거움이란 제멋대로 쾌락을 쫓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1 Timothy 6:17-21; Matthew 19: 16-30)

것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이유는 부를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관대함의 표현인,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2. In God We Trust 우리가 믿는 주님안에서

But the Bible has more to say about our prosperity than simply to say that we should enjoy it. Although there is nothing wrong with our money in and of itself, it is not to be trusted. Paul warns of two sinful attitudes that are common among the rich – a false sense of importance and a false sense of security: “Command those who are rich in this present world not to be arrogant nor to put their hope in wealth, which is so uncertain” (v. 17a).

Some rich people are proud of what they can accumulate, and this makes them rather arrogant. They boast about their latest purchases and acquisitions. They feel so important that they expect to be treated with a degree of deference. In the church, they think they are entitled to influence simply because they are wealthy. These attitudes are all too common in the business world – there is a sense of entitlement. The rich – and that includes us – must not think too highly of themselves. The only reason we are prosperous is that God has made us prosper.

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그것을 즐기라 라는 메세지 보다는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돈 그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신뢰되어서는 안됩니다. 바울은 부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두가지 죄성의 자세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중요성의 개념과 잘못된 안보에 대한 의식입니다: “이 세대의 부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라” (17 절 앞부분). 어떤 부자들은 그들이 축적한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은 그들을 다소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그들이 최근에 산것이나 획득한것에 대해 자랑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며, 정중하게 다루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교회에서 그들은 단지 그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세들은 세상의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점들 입니다 – 그런 권위의식이 존재합니다. 부자들은 –이는 우리를 포함합니다 -스스로를 너무 높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유하게 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Another common attitude among the wealthy is a false sense of security. Instead of relying on God, they depend on their financial instincts and trust in their own resources. Since we are a wealthy nation, these are common Australian attitudes. If the economy is good, the mood in the country is generally good, and the politicians will stay in office. If the economy is bad, the mood in the country is bad, and the politicians will have to go. This is a sure sign that our culture bases its ultimate sense of security on money. The false sense of security even pervades the church. A former editor of Christianity Today, when asked what he considered the greatest problem facing the contemporary church, answered, “It is not liberalism.....or wrong views of revelation or inspiration or other controversial points in theology.....Rather the most serious problem facing today’s church is materialism – materialism not as a philosophical theory, but as a way of life”.

부유한 사람들이 갖게된 또다른 공통 자세는 잘못된 안전 보장의 의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그들은 그들의 금전적 자질과 그들이 소유한 재물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유한 나라임으로 갖게된 공통적 호주인의 태도가 이것입니다. 경제가 좋을때, 국가의 분위기도 일반적으로 좋고 정치인들도 사무실에 머뭅니다. 그러나 경제가 나쁠때는 국가 분위기도 안좋고 정치인들도 떠나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문화가 궁극적으로 돈에 대한 안전 의식에 근거하고 있다는 확실한 싸인입니다.

(1 Timothy 6:17-21; Matthew 19: 16-30)

잘못된 안전 의식은 심지어 교회에도 퍼져있습니다. "Christian Today"의 전 편집장은 현대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그가 생각할때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을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유주의도...아니면 계시록이나 영적 감화의 잘못된 견해, 아니면 신학의 다른 민감한 주장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물질주의 - 철학적 이론으로의 물질주의가 아닌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버린 - 입니다.

The reality is that money is a shaky foundation. After a decade of economic strength in the 1990s and into the early 2000s, with investors holding on to the stock market for the ride of their lives,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as a stark reminder that, when it comes to the economy, there are no guarantees. The writer of the book of Proverbs put it well: "Cast but a glance at riches, and they are gone, for they will surely sprout wings and fly off to the sky like an eagle" (Proverbs 23:5). Riches are here today, gone tomorrow. They cannot be trusted.

진실은 돈이란 그저 무너지기 쉬운 기반인 것입니다. 1990 년대의 십년간의 경제 성장후 2000 년대 초기에 들어와 투자자들이 그들의 최고의 삶을 위한 주식 시장을 붙들고 있던 때, 국제 금융위기는,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보장될수 없다는 것을 뚜렷히 상기시켰습니다. 잠언서의 저자는 이렇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정령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잠언 23:5). 오늘 있던 부는 내일 없어집니다. 그것을 믿어서는 아닙니다.

The only safe place to put our trust is in God himself. All prosperity comes from him. Thus the only place to put all confidence is in God, in whom we have everything we need. Those who do trust in him are able to say, "Lord, you have blessed me with more than I could ever deserve. But you could take it all away tomorrow and I would still be full of joy, for I have everything I need in Jesus Christ". be? Coins issued by the United States must bear the motto "In God We Trust". That indeed is sound theology. As Christians, it is in God we are to trust and not money.

우리가 믿음을 둘 유일한 안전한 곳은 하나님 한분입니다. 모든 번영은 그에게서 옵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안에 있음으로 모든 확신을 둘수 있는 유일한 곳은 하나님 안에서 입니다.

3. The Generous Lifestyle 넉넉히 나누는 삶의 방식

One of the best ways to learn how to trust God rather than money is to give our money away. That is what Paul wants Timothy to tell the wealthy people in his congregation to do: "Command them to do good, to be rich in good deeds, and to be generous and willing to share" (v.18). In other words, rich Christians are to be good and generous.

돈 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돈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가 그의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 좋아하기를 명하라"(18 절). 다른 말로 하면 부유한 크리스천들은 선하고 넉넉히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There are a number of surprises in this verse. One surprise comes from the way Paul plays with his words. Notice that he actually commands the rich to be rich – to be rich in good deeds. The world tells us to aspire to be rich – to be wealthy.....but are you rich in good deeds? Remember how Paul describes Christians – those saved by grace – in Ephesians 2: "For we are God'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to do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in advance for us to do" (v.10). Have you learned that the way to be truly wealthy is to give your life away in serving Jesus Christ?

(1 Timothy 6:17-21; Matthew 19: 16-30)

이 말씀에는 수많은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한가지 놀라운 점은 바울이 단어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인한것인데, 그가 사실 부자들에게 부자가 되라고 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선한 사업을 하는데 부하라. 세상도 우리에게 부하기를 갈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부자가 되기를. 그렇다면 여러분은 선한 행동을 하는데 부유합니까? 바울이 에베소서 2 장에서 어떻게 크리스천들을 묘사했는지 –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0 절). 여러분은 예수님께 헌신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부유해지는 방법을 배웠습니까?

Another surprise is that God does not come begging for money. The first 2 things that Paul mentions in verse 18 do not require any cash. The first thing God wants from the rich is not their money. What he values most of all is a servant’s heart. He wants us to be “rich toward God”, as Jesus put it when he explained the Parable of the Rich Fool (Luke 12:21). This means that it is not enough for the wealthy to give money to charity, although of course there is a place for that. What God demands first is active service. It is one thing to pay someone else to feed the hungry or care for the sick – it is another thing to feed the hungry yourself, or to take care of someone who is sick. There are no idle rich in God’s kingdom. Every Christian is called to active, personal involvement in deeds of mercy.

또 다른 놀라운 점은 하나님은 돈을 구걸하러 오신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울이 18 절에서 언급한 첫번째 두가지 것은 현금이 요구되는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자들에게 원하는 첫번째 것은 그들의 돈이 아닙니다. 그가 모든것에 앞서서 가치를 두는 것은 종의 마음입니다. 그는 우리가 예수님이 ‘바보 부자’의 이야기를 들어 설명했을때처럼 “하나님을 향해 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물론 자선을 베풀어야 할 곳은 있음에도, 부자들이 구제금을 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선 요구하시는 것은 적극적 헌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여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지만 – 직접 굶주린 사람을 먹이고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은 또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게으른 부자는 없습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선한 실천에 적극적이고 개인적으로 연류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However, some deeds of mercy also require money. And so another way that wealthy Christians can glorify God is through the wise use of their money. God calls all his children “to be generous and willing to share” (v.18) – that is to embrace a lifestyle of giving. The stewardship of personal wealth is an important aspect of a rich Christian’s calling. How are you going with the stewardship of your wealth? In the days of the early church it was generosity, more than anything else, that showed the difference between Christianity and paganism. The pagans did not care for the poor because the poor could give them nothing in return. What made Christians different is that they did care for the poor. In Acts 4 we read that the believers “shared everything they had” and “there were no needy persons among them” (vv.32, 34). Not only did Christians care for their own poor, but they also cared for the pagan poor. They fed the hungry, cared for lepers and rescued babies and children left to die. By the second century, Tertullian was able to boast that Christians spent more on the poor in the street than pagans spent at the temple. The result was rapid, worldwide expansion of the gospel.

(1 Timothy 6:17-21; Matthew 19: 16-30)

그럼에도 몇몇 자선행위는 돈이 또한 요구 됩니다. 그러므로 부유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하나의 방식은 그들의 돈을 지혜롭게 쓰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자녀들이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인색하지 않기를”(18 절) 요구합니다 – 이는 나누는 삶의 방식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재산에 대한 청기자 자세는 부유한 크리스천을 부르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재산에 관한 청지기적 자세를 실천하겠습니까? 초대교회 시절에는 크리스천들과 안 믿는 자들의 다른 점으로 보여졌던점은, 다른 무엇보다도, 나누기를 좋아했다는 점입니다. 안 믿는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되돌려 줄수 없기에 가난한 사람들을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을 다르게 만들었던 것은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던 점입니다. 사도행전 4 장에서 우리는, 믿는자들이 “그들이 가진 모든것을 나누었고”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궁핍한 자가 아무도 없더라” (32, 34) 라고 읽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오직 믿는자 가운데 가난한자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안믿는자들 중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나병환자를 돌보고 죽게 내버려진 아기들과 어린이들을 구했습니다. 2 세기에, 터툴리안은 크리스천들이 거리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쓰는돈이 안믿는사람들이 사찰에서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쓰다고 하며 크리스천들을 자랑할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빠르고 세계적인 복음의 확산을 이루었습니다.

The reason Christians are able to be so generous is that we serve a generous God. God is richer than the richest man who ever lived. He not only owns the cattle on a thousand hills (Psalm 50:10), but he also owns the hills! Yet God does not hoard his treasure. As Paul has said in v.17, “God.....richly provides us with everything for our enjoyment”. It is impossible to think of God’s rich giving without thinking of his most lavish gift of all: “For you k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though he was rich, yet for your sakes he became poor, so that you through his poverty might become rich” (2 Corinthians 8:9). Those who have become rich by the grace of God must therefore be willing to enrich others.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나눌수 있는 이유는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껏 살았던 어느 부자보다도 더 부유하십니다. 그는 천개의 산의 가축들이 그의 것 (시편 50:10) 일뿐만 아니라 그 산들 또한 그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재산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바울이 17 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십니다”. 모든 것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물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후히 주심을 생각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고린도후서 8:9).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게 된 사람들은 다른사람들을 부유케하는 것을 즐겁게 해야 합니다.

More capital is being generated in the world now than at any other time in human history, yet the disparity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has never been greater. At the same time, many valuable Christian ministries, including mission enterprises, are hindered by lack of funds. The problem is not that there are not enough Christians, but that many of the new Christians live in poor countries in Africa and South America and that most Christians, in the western world at least, are not Christlike enough (generous and sacrificial) in their giving. The gospel has not really impacted the use of their money. I wonder, is that the case with you?

인류 역사의 다른 어느 때보다 현재 더 많은 자본이 창출되었지만,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간격이 이렇게 컸던 적은 없었습니다. 동시에 선교단체들을 포함한 많은 선교사들이 기금의 부족으로

(1 Timothy 6:17-21; Matthew 19: 16-30)

방해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충분한 크리스천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새 신자들이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와 같은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고, 서구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관대하고 헌신적인) 나눔 생활을 크리스천답게 충분히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들의 돈을 사용하는 데는 진정으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경우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One way for us to become more like Christ in our giving is to train ourselves to be generous in the little sacrifices of daily life. Take the smallest piece of cake or helping of food. Let someone else have the parking space. Make sure there is plenty of hot water for the next person taking a shower. Share your power tools or garden implements with a neighbour. Put a little extra in the offering plate. For the Christian generosity ought to be a way of life.

우리가 나눔에 있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가지 방법은 날마다 작은 희생을 하는데 인색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조각의 케익을 집거나, 음식으로 돕는것. 다른 사람이 주차공간을 쓰도록 배려하는것. 다음 사람이 샤워할때 충분한 더운물을 쓸수 있도록 확실히 하는것. 여러분의 전기 도구나 정원가꾸는 도구들을 이웃과 나누어 쓰는것, 조금 더 많은 헌금을 헌금 접시에 올려놓는것 등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풍성한 나눔은 삶의 사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4. Saving Up for Eternity 영원무궁함을 위한 저축

The command to be generous and willing to share is hard for some wealthy people to follow. After all, if a rich man gives his riches away, he won't be rich anymore. Remember that this was why the rich young man refused to follow Jesus. Jesus told him, "If you want to be perfect, go, sell your possessions and give to the poor, and 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Then come, follow me" (Matthew 19:21). Unfortunately, the young man was not ready to be so generous: "When the young man heard this, he went away sad, because he had great wealth" (Matthew 19:22). As Jesus watched the rich young man slowly walk away, he said to his disciples "I tell you the truth, it is hard for a rich man to enter the kingdom of heaven" (Matthew 19:23). The apostle Paul understood this and so, in order to encourage the rich to be generous, he appealed to their business instincts. People who are generous and willing to share thus "will lay up treasure for themselves as a firm foundation for the coming age, so that they may take hold of the life that is truly life" (v.19).

넉넉히 기쁨으로 나누라는 명령은 몇몇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따르기 힘듭니다. 결국 부자가 그가 가진 것을 주어버린다면, 그는 더이상 부자가 아닐 것입니다. 이점이 그 젊은 부자가 예수를 따르기를 거부했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만일 네가 완벽하기를 원한다면, 가서 너의 소유물을 팔아라. 그러면 너는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나를 따르라"(마태복음 19:21)라고 말하십니다. 불행하게도 그 젊은이는 그렇게 풍성히 나눠줄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마태복음 19:22). 예수님이 그가 서서히 뒷걸음질 하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마태복음 19:23). 사도 바울은 이점을 이해했고, 그래서 부자들이 관대히 나눌수 있도록 부추기기 위해서 그들의 사업적 직감에 호소했습니다. 그리하여 인색하지 않고 기쁨으로 나누는 사람들은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되는 것이니라"(19 절).

From the spiritual perspective, the eternal perspective, storing up earthly treasure actually turns out to be a bad investment! The goal of any investor is to gain long-term financial security. But even if a

(1 Timothy 6:17-21; Matthew 19: 16-30)

man spends his whole life trying to build up a fortune, he will lose all his assets at death. The Rich Fool in Jesus parable (Luke 12:13-21) discovered this, didn't he?

영적 관점, 영원 불멸의 관점에서 볼때, 이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사실 좋지않은 투자로 판명되었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의 목표는 장기간의 물질적 안정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의 일생을 재산을 늘리는데 사용한다면, 그는 죽는 순간 그의 모든 재산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하나인 어리석은 부자는 이런 경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According to the Bible there are really 2 kinds of wealth. Paul hinted at this in v.17 when he referred to "those who are rich in this present world". This phrase suggests that there is also a world to come. And being rich in that world in the coming age and being rich now in this world are two entirely different matters. Where earthly treasure is concerned, the old saying is true, "you can't take it with you". But when it comes to spiritual capital, you can send it on ahead! This is why the Bible often describes the blessing of heaven as treasures. This was the teaching of Jesus himself who said, "Do not store up for yourselves treasures on earth, where moth and rust destroy, and where thieves break in and steal. But store up for yourselves treasures in heaven, where moth and rust do not destroy, and where thieves do not break in and steal.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Matthew 6:19-21).

성경에 의하면 두가지 종류의 부가 있습니다. 바울은 17 절에서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서 힌트를 줍니다. 그 표현은 다음에 올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다가올 그 세상에서 부유함과 지금 이 세상에서 부유함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 땅의 재물에 관한 옛말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가지고 갈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본이라면 여러분은 그것을 미리 보낼수 있습니다! 이점이 왜 성경이 종종 하늘의 축복을 보물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이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스스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는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태복음 6:19-21).

When Paul talks about the kind of treasure that will make a solid foundation for the age to come, what he has in mind is the treasure of eternal life. One thing money cannot buy is life itself. Earthly riches have no life-giving power. But a man or woman who gives his or her possessions away for the sake of Jesus Christ and his kingdom has begun "to take hold of the life that is truly life" (v.19). The Bible encourages us to amass a fortune in heavenly treasure, and thereby take hold of eternal life. This is not salvation by works. Paul isn't teaching that wealth is a means to secure our salvation. There is no way to buy our way into heaven. Eternal life is a free gift of God entirely dependent on his grace to us in Jesus. But anyone who is rich in good deeds and generous out of gratitude to God for salvation in Jesus Christ has already begun in this life to enter the joy of eternal life. The Bible promises that when earthly treasure is given aw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t is exchanged for heavenly treasure. Unlike earthly treasure, heavenly treasure cannot be lost. It is a lucrative investment because it secures the infinite riches of heaven. It is a long-term investment because it will last for all eternity. It is the ultimate investment providing "a firm foundation for the coming age". Having received the glorious gift of eternal life in Jesus Christ through faith in him, are you investing in heavenly treasure by doing good, being rich in good deeds and being generous and willing to shar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your Saviour and Lord?

바울이 다가올 시대를 위한 탄탄한 기초를 세우는 그런 종류의 보물에 관하여 말할때, 그가 마음에 두고 있던 것은 영생에 관한 보물이었습니다. 돈으로 살수 없는 한가지가 생명 그것입니다. 이

(1 Timothy 6:17-21; Matthew 19: 16-30)

땅에서의 부는 생명을 주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 그가 가진것을 내주는 남자나 여자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19 절) 을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에 재산을 쌓아, 그럼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취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을 위한 행위는 아닙니다. 바울은 부가 구원을 안전하게 지키기위한 수단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 가는 길을 돈으로 살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의존하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안에서 선한 사업을 부하게 하고 넉넉히 베푸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의 기쁨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땅의 보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주었을때, 그것이 하늘의 보물과 이미 맞바뀐것을 약속합니다. 이땅의 보물과는 달리 하늘의 보물은 잃어버릴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무궁한 부를 약속하기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투자인 셈이지요. 그것은 또한 영원 무궁히 지속되기 때문에 장기간의 투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것은 "다가올 시대의 탄탄한 기반"을 제공하기때문에 궁극적인 투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이라는 영광의 선물을 받은 여러분은 우리 구세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사업을 부하게 하고, 넉넉히 베풀며 기쁨으로 나눔으로, 하늘의 재물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멘

Amen

Prepared by Rev. Grant Lawry, Canterbury Presbyterian Church, Canterbury, Melbourne, Australia for use of the Canterbury congregation.